

십간십이지의 기원에 관한 문헌적 고찰

나혁진*, 김기승**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The Literature Study about the Origin of Sipgan-Sipiji

Hyeok-Jin Na*, Ki-Seung Kim**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음양오행이 배속되어 있는 십간십이지의 기원과 의의에 대하여 고찰해보는 것이다. 십간과 십이지가 고대 중국 역법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가설과 신화적인 기록이라고 할지라도 고전문헌에 기록된 자료의 내용, 고고학적으로 갑골문자에 남겨진 기록 등을 차례로 살펴봄으로써 동양 인문사회과학에서 기필코 간과할 수 없는 십간십이지에 대한 시작점을 탐색해 나가고자 하였다. 십간십이지의 문헌적 고찰을 통해 이 부호체계는 신석기 후기 부계 씨족사회를 이끌던 황제와 그의 스승 대요에 의해 완성되었을 것이라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그 이유는 제 순시대에 남겨진 고대 천상대 유물이 십간과 연관된 10월력의 사용을 뒷받침하고, 갑골문에 나타난 십간이 신성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역법에 사용되었음을 볼 때 시간을 기록하고자 하였던 역법의 시대와 그 궤를 같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명리학에 대한 이론체계의 논리성 담보, 그리고 통계적 사회과학 기법을 통한 증명 등 부단한 연구 노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근간이 되는 십간십이지에 대한 이 문헌적 고찰이 향후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제어 : 십간십이지, 육십갑자, 음양오행, 갑골문, 명리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origin and significance of Sipgan-Sipiji that Yinyang and five elements are assigned. By looking at the hypotheses that Sipgan-Sipiji may have originated from the ancient Chinese calendar, the contents of the materials recorded in the classical literature, and the records left in the Oracle bone script, we wanted to explore the starting point of Sipgan-Sipiji in Easter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at could never be overlooked.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of Sipgan-Sipiji, the researcher believes that this code system was completed by Hwangje and his teacher Daeyo, who led paternal clan society in the latter part of the Chinese Neolithic Age, because of supporting the use of the October calendar associated with Sipgan, and because Sipgan in the Oracle bone script seems to keep the sacredness and at the same time to be used to document the time. I believe that this consideration of Sipgan-Sipiji will be helpful for future related research in the process of underlying the research effort of Myeongri Science, such as the security of the logic of the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theory system and the proof through statistical social science techniques.

Key Words : Sipgan-Sipiji, 60-Gapja, Yinyang & Five elements, Oracle bone script, Myeongri

Received 03 January 2020, Revised 10 January 2020

Accepted 16 January 2020

Corresponding Author: Ki-Seung Kim(Professor, Department of Oriental Study,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Email: kbs4984@hanmail.net

ISSN: 2466-1139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명리학의 사상체계는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에너지가 인간의 육신(肉身)과 정신(精神)에 깃들어 있고 외부 에너지를 만날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피는 것에서 시작된다. 무형의 음양오행은 소프트웨어(software)이고, 사람의 인체와 세상의 만물은 하드웨어(hardware)에 해당한다. 즉 출생과 함께 개별 인간의 하드웨어가 탄생하는 것이고 그 순간 음양오행의 에너지가 소프트웨어로서 셋업되며 그 후 인간은 다양한 유전적 DNA와 환경의 정보 그리고 학습한 지식을 통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수십억의 인간들은 각자 다른 체질과 성격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중에서 인간에게 셋업된 음양오행의 정보와 현재의 시점을 운행하고 있는 에너지가 만나며 발생하는 작용과 변화를 어떻게 측정해 낼 수 있는가? 고대의 동양인들은 그 측정 도구를 만들고 응용하고 발전시켜 왔는데 그것이 바로 10개의 천간(天干)과 12개의 지지(地支)이며 상하가 짝을 이루는 육십갑자(六十甲子)이다. 음양오행이라는 무형의 에너지를 규칙과 논리적 틀에 담아 내고자 취용해 쓴 것이 십간십이지와 육십갑자인 것이다.

십간십이지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자연발생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인위적 도구로서 개발된 것이므로 음양오행처럼 사유체계 혹은 자연발생적 개념이라면 시초를 찾아보는 것이 불필요한 일이겠지만, 십간십이지는 그 기원과 의의를 찾아보는 것이 동양 인문사회과학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작업이다. 십간십이지와 음양오행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개념이 발전되어 오다가 춘추·전국시대와 한대를 거치면서 결합되었고 오랫동안 천문학, 역법, 주역, 풍수지리, 명리학 등 동양 사유체계 전반에 녹아 들어갔다.

간지(干支)라고 약칭하는 십간십이지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윤창렬(1996)은 십간과 십이지의 개별 명칭에 대한 의미와 상징성을 『설문해자』, 『사기』, 『한서』, 『석명』 등에서 찾아 정리하였고, 전경찬(2008)은 십간십이지가 음양오행에 배속된 내용 및 적용을 살피고 간지와 하도(河圖)의 관계와 융합을 고찰하였다. 김만태(2011)는 십간십이지의 근원을 살피고 동시에 고문헌에 나타난 각각의 의미를 살피고 십간십이지가 한

국 민속문화에 어떻게 녹아있는지를 정리하였다. 그 외에도 십이지와 관련이 있는 띠동물 혹은 십이생초(十二生肖)에 대한 연구(손경수, 1962; 천진기, 2002)도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음양오행이 배속되어 있는 십간십이지의 기원과 의의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십간과 십이지가 고대 중국 역법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가설, 신화적인 기록이라고 할지라도 고전문헌에 기록된 자료의 내용, 고고학적으로 갑골문자에 남겨진 기록 등을 차례로 살펴봄으로써 동양 인문사회과학에서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십간십이지에 대한 시작점을 탐색해 나갈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십간십이지를 역학과 명리학에 사용하면서 나타나는 역원(曆元)과 역수(易數)의 의의를 간략하게나마 짚고 넘어갈 것이다.

2. 10월력과 12월력의 공존과 혼용

십간(十干)과 십이지(十二支)의 숫자가 왜 10과 12인지에 대한 가설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논의가 되어왔다. 이은성(1985)은 천간이 10개로 정해진 것은 그 목적이 날짜의 순서를 알려 주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하며 음력 1달을 상순, 중순, 하순으로 나누고 각 순을 십간에 배당하였을 것이라고 보고 10진법의 원인을 손가락 10개에서 찾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12는 10보다 더 여러 개의 소인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십이지가 십간보다 훨씬 앞서 쓰였을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김만태(2011)는 사람은 열 손가락과 열 발가락을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10진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며 10진법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가장 널리 활용되었다고 하였다. 반면 지지의 숫자가 12가 선정된 것은 1년에는 12삭망월이 있다는 사실에서 가장 크게 기인했다고 보았다.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에 일부 동의하면서 십간과 십이지가 고대 중국 역법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본다. 중국의 역사 속에서 십간과 십이지가 등장하는 시기는 황제(黃帝) 시대로 추정되며 고고학적으로는 갑골문이 기록된 은나라보다는 훨씬 이전이 분명하다. 문헌으로 기록이 남아 있는 중국 역법, 즉 전옥력이나 태초력, 사분력¹⁾이 사용되기에 앞서서도 상고시대

1) 전옥력은 사마천의 『사기』에 기원전 104-30년에 걸친 역

중국인들은 역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중국 산서지방의 도당씨(陶唐氏) 유적에 보면 제순(帝舜)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천상대(天象臺)가 있는데 13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고 12개의 틈새가 존재한다. 이 중 2개는 각도가 달리 위치해 문으로 추정되며 실제로는 한 바퀴 둘러 10개의 틈새가 있고 태양이 그 틈새로 빛을 비추며 한 달의 시작을 나타낸다. 이 유적은 황제 및 순임금 시대에 고대 중국인들이 10월력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된다.

한편 중국 상고사의 중요한 기록이 남아 있는 『국어(國語)』에 따르면 중국 고대에 염황(炎黃) 부족과 구려(九黎) 부족이 살았다고 한다. 그들의 생활상은 염황 부족은 평야 지대에서 농경 생활을 하였고 구려 부족은 산림 지대에서 수렵 생활을 하였다. 이런 환경의 차이를 바탕으로 가정해 볼 때 염황 부족은 태양신을 모시고 태양의 길이에 따라 10월력을 사용하며 농사 시기를 맞추었고, 구려 부족은 지역을 자주 이동해 다니고 산림 지대에 생활하였기에 규표를 사용하기보다는 달의 변화를 두고 1년을 구분하는 12월력을 사용하였다는 가설을 세워본다. 이 부족들은 황제(黃帝)와 치우(蚩尤)의 전쟁 시기에 부족 간 세력 다툼이 생기고 정권교체가 발생한다. 이런 과정에서 역법의 혼용도 나타나고 황제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부족통일을 이루었을 시기에는 태양을 활용한 10월력과 달을 활용한 12월력이 혼합되고 발전하는 새로운 역법의 시대가 도래하였을 것이다.

3. 문헌 기록에 의거한 十干十二支의 기원

3.1 고전에 기록된 십간십이지의 기원

십간십이지 및 육십갑자의 성립배경을 고전문헌에서 찾아보면 신화적(神話的) 기원의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십간십이지의 시작과 관련하여 문헌에서는 대체로 천황씨(天皇氏)나 황제(黃帝)를 지목해 왔다.

천황씨(天皇氏)는 역사시대 이전으로 시대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신화적 인물이지만, 황제(皇帝) 시대는

은대(殷代)보다 1000년 정도 앞선 기원전 2700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²⁾ 중국은 기원전 6000-5000년 사이에 신석기 시대로 진입하여 수천 년 동안 모계(母系) 씨족사회를 유지하다가 기원전 2000년경인 신석기 말기에 이르러서야 부계(父系) 씨족사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황제(黃帝)는 부계 씨족사회 시대의 인물로 보인다. 황제(黃帝)는 사마천의 『사기(史記)』 ‘오제본기(五帝本紀)’에서 중국역사의 시작점으로 황제를 언급하므로 역사적인 인물로 보기는 하지만 그의 행적을 증명하기에는 논란이 있다.

만민영(萬民英)은 『삼명통회(三命通會)』에서 십간십이지는 천황씨가 창제하였다는 ‘천황씨창제설(天皇氏創製說)’을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육십갑자는 황제(黃帝)의 스승인 대요(大撓)가 만들었다는 ‘대요창제설(大撓創製說)’을 제기하였다. 다음은 『삼명통회』에 기록된 천황씨창제설의 주요 내용이다.

“대저 목(木)의 줄거리 간(幹)은 강하여 양(陽)이 되고 지(枝)는 약하여 음(陰)이 된다. 반고씨(盤古氏)는 천지(天地)의 도를 밝혀 음양(陰陽)의 변화에 통달하여 삼재(三才)의 수군(首君)이 되었다. 천지가 이미 나뉘어진 후에 하늘이 먼저 있고 후에 땅이 있었고 두 기운이 화(化)하여 사람이 생겼다. 고로 천황씨(天皇氏) 일성(一姓) 13인이 반고씨(盤古氏)를 이어 이를 다스리게 되었다. 이때를 일러 천령이라 하니 담백하고 무위해서 풍속이 저절로 순화되매 비로소 세(歲)의 소재로서 정하는데 간지(干支)의 이름을 지었으니 그 십간(十干)의 이름 왈(曰) 알봉, 전몽, 유조, 강어, 저웅, 도유, 상장, 중광, 현익, 소양이고, 십이지(十二支)의 이름은 왈(曰) 곤돈, 적분약, 섭제격, 단알, 집제, 대황락, 돈장, 협흡, 군탄, 작약, 엄무, 대연현이다. 채옹이 단정 짓기를 간(干)은 간(幹)이요, 그 명칭에 십(十)이 있으니 십모(十母)인즉 지금의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가 그것이다. 지(支)는 지(枝)요 그 이름이 十二가 있으니 십이지(十二子)인즉 지금의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이다.”³⁾

법 기록이 남아 있고, 태초력은 삼통력이라고도 불리며 사분력과 함께 『전한서』 ‘율력지’에 실려있고 그 시기는 각각 기원전 104년, 서기 85년으로 한나라 때의 초기 역법에 해당한다.

2) 『史記』에는 黃帝의 생물연대나 즉위 등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이현중(李鉉淙)은 『동양연표(東洋年表)』(1992)에서 황제의 생물연대는 기원전 2706-2596년이고, 즉위는 기원전 2696년이라고 주장하였다.

3) 萬民英(1996), 『三命通會』, 台北: 武陵出版社: 25-26.

서승은 『연해자평(淵海子平)』에서 간지는 황제 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간지천강설(干支天降說)’을 주장하고 있는데, 십간십이지는 황제가 치우의 난을 다스리기 위해 목욕계개하고 천신에 제사 지내니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황제(黃帝) 때에 치우(蚩尤)가 난을 일으키에 황제(黃帝)가 백성의 고통을 심히 염려하여 탁록(涿鹿)의 벌판에서 치우(蚩尤)와 전쟁을 하니 흐르는 피가 백리나 되었지만 항복시킬 수 없었다. 이에 황제(黃帝)는 목욕계개하고 단을 쌓아 천신에 제사하고 방구에서 지기에 예를 다하니 하늘에서 십간(十干)과 십이지(十二支)를 내려 주셨다. 황제(黃帝)는 십간(十干)을 원(圓)으로 펼쳐 하늘 모양을 본뜨고, 십이지(十二支)를 방(方)으로 펼쳐 땅의 모양을 본뜨니 이로써 간(干)은 천(天)이 되었고 지(支)는 지(地)가 되었다. 이를 문에 걸쳐놓아 빛이 모아지도록 한 연후에 능히 다스릴 수 있었다.”⁴⁾

한편 십간십이지의 상하 조합인 육십갑자(六十甲子)의 기원에 대해서 고대 문헌들은 대부분 황제 시대의 대요씨(大撓氏)를 지목하고 있다. 대요씨(大撓氏)가 만들었다는 내용의 언급은 『여씨춘추(呂氏春秋)』, 『통감(通鑑)』, 『후한서(後漢書)』, 『오행대의(五行大義)』, 『통감외기(通鑑外紀)』, 『해여총고(陔餘叢考)』, 『연해자평(淵海子平)』, 『삼명통회(三命通會)』, 『오행정기(五行精綺)』 등 고전에 두루 나타나고 있다. 『연해자평』과 『삼명통회』에서는 육십갑자(六十甲子)를 대요씨(大撓氏)가 만들었음을 다음과 같이 각각 기록하고 있다.

“대저 갑자(甲子)는 대요씨(大撓氏)가 비로소 완성하였고, 납음(納音)은 귀곡자(鬼谷子)가 완성하였다. 상(象)은 동방만천자(東方曼倩子), 동방삭(東方朔)이 완성하였는데 동방삭(東方朔)이 그 상을 완성한 후에 이름하기를 화갑자(花甲子)라 하였다.”⁵⁾

“황제(黃帝)가 대요(大撓)에게 오행의 정(精)을 연구하도록 명하매 천서삼식을 연구하여 십간십이지로써 육십(六十)이 되게 했다.”⁶⁾

예컨대 십간십이지의 기원을 천황씨로 볼 것인지, 황제로 볼 것인지는 천황씨와 황제의 실존 여부가 불분명하고, 시대적인 연대고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역사적 관점에서 십간십이지의 기원이 천황씨 때인지 또는 황제 때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전국시대(戰國時代) 여불위(呂不韋)의 식객들이 편찬한 『여씨춘추(呂氏春秋)』, 북송(北宋)때 사마광(司馬光)의 『통감(通鑑)』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서 황제(黃帝)때 대요(大撓)가 간지를 만들었다고 기록하였고, 사마표(司馬彪)가 편찬한 『후한서(後漢書)』에는 “대요가 처음 甲乙을 만들어 일(日)이라 이름하였고 이를 일러 간(幹)이라 하였다. 子丑을 만들어 월(月)이라 이름하여 지(枝)라 하였다.”⁷⁾고 하였고, 『오행대의(五行大義)』에 “간지는 오행을 따라 세운 것이니, 옛날에 현원씨(軒轅氏)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대요씨가 만든 것이다. 대요씨가 오행의 정수를 뽑아 북두성의 기틀을 세우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 甲乙로 시작하여 일(日)에 이름을 정한 것을 간(干)이라 하고, 子丑으로 시작하여 월(月)에 이름 정한 것을 지(支)라 한다.”⁸⁾고 하였다. 이렇듯 여러 문헌의 기록을 주목하면 십간십이지 및 육십갑자는 황제 시대에 창제되었고 대요와도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3.2 갑골문자로 기록된 십간십이지

은(殷)나라의 역사와 왕조에 대해서는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은본기(殷本紀)’에 그 역사가 서술되어 전해 내려오기는 하였으나, 정확한 은나라에 대한 실체는 1899년 이후 주목받기 시작한 갑골문(甲骨文) 연구를 통해 규명되기에 이르렀다. 갑골문은 거북의 복갑(腹甲)과 소의 어깨뼈에 새긴 문자로 그간 십만 편 정도 수집되어 1,700여 글자가 해석되었고 해석된 갑골문의 내용으로는 점복(占卜)을 행한 기록이 대부분이고 그 외 간지표를 기록한 것이나 구갑(龜甲)의 공물현상과 소장

4) 『淵海子平』, “黃帝時有蚩尤神 擾亂當時之時 黃帝甚憂民之苦 遂戰蚩尤於涿鹿之野 流血白里 不能治之 黃帝於時齋戒築壇祀天 方丘禮地 天乃降十干十二支 帝乃將十干圓布象天形 十二支方布象地形始以干爲天 支爲地 合光仰職鬥放之 然後 乃能治也”

5) 『淵海子平』, “夫甲子者 始成於大撓氏 而納音成之於鬼谷子 象成於東方曼倩子 時曼倩子既成其象 因號曰花甲子”

6) 『三命通會』, “黃帝命大撓 探五行之情 考天書三式 以十干十二支 衍而成六十”

7) 『後漢書』, “是始作甲乙 以名日謂之幹作子丑以名月謂之枝”

8) 『五行大義』, “干支者因五行而立之昔軒轅之時大撓之所制也 蔡邕月令章句云大撓探五行之精占斗機所建也始作甲乙以名日謂之幹作子丑 以名月謂之支”

현황, 기사각사(記事刻辭) 등이 있다.⁹⁾

은나라의 유물인 갑골문(甲骨文) 연구를 통해 은나라는 정확하게 역사적 실체가 밝혀진 가장 오래된 나라로 기원전 1600년경부터 기원전 1046년경까지 실재했던 나라로 드러났다. 갑골문 연구를 통해 은대왕명(殷代王名)에 모두 십간을 사용하였음과 동시에 은대에는 육십갑자를 역일(曆日)로 사용하였음이 밝혀졌다. 『사기』에 나오는 은나라 역사와 역대 왕의 이름은 역사적인 고증이 없이 사서(史書)로만 전해 오다가 갑골문을 통해 그 역사가 사실임이 고증되고 오류도 수정되면서 은나라의 존재는 신화에서 역사의 공간으로 발을 내딛게 된다.

은나라는 공식적인 왕조로서 실체를 갖춘 천을(天乙) 왕 이후 30명의 왕의 이름¹⁰⁾에 모두 십간이 사용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천을(天乙)의 아들 태정(太丁)은 왕이 되지 못하고 죽었으나 이름에는 십간이 들어 있었고, 마지막 왕 제신(帝辛)의 아들 무경(武庚) 또한 왕이 되지 못한 채 은(殷)이 주(周)에 망했지만 역시 이름에는 십간이 사용되었다. 은나라 후기는 왕의 권력이 신성시되었던 시기로, 왕 혹은 왕이 될 태자의 이름에만 십간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십간(十干)의 기호를 신성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왕의 이름에 십간을 붙인 이유에 대해서는 생일설(生日說), 사일설(死日說) 등이 있으나¹¹⁾ 어떤 학설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은대에 선왕(先王)의 제사를 지낼 때 이름 속 천간에 해당하는 날, 즉 甲의 이름은 甲일에, 乙의 이름은 乙일에 제사를 지냈고, 다른 고대의 왕들처럼 은나라 왕들도 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제사 지내고 하늘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가정할 때, 이미 은대에 십간의 의미는 하늘의 뜻을 인간에게 이어주는 신성의 징표였다.

갑골문에 기록된 십간십이지의 두 번째 모습은 역일(曆日)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갑골문 해석에 따르면 은대에는 복사(卜辭)를 진행한 날을 갑신복(甲申卜), 계미복(癸未卜) 등 그 해당 일자를 십간십이지로 표시하였다. 또한, 갑골 중에는 육십갑자가 직접 새겨져 있는 것이 여럿 발견되었는데 가로로 쓰인 것, 세로로 쓰인 것, 6행 간지표 전체가 남은 것, 반만 남은 것 등 다양하게 발견되었다. 특히, 연경(燕京)대학에서 보유한 갑골(甲骨)에는 각 행마다 10개의 간지를 좌행으로 새긴 육십갑자(六十甲子) 표가 온전하게 새겨져 있고, 글자체는 제을(帝乙)·제신(帝辛) 시기의 것으로 글자가 명확하고 완전무결한 것이 발견되었다.¹²⁾ 이렇듯 간지표(干支表)가 기재된 갑골이 발견됨에 따라 은나라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형태와 순서로 육십갑자를 역일(曆日)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나아가 은나라 때는 10일을 1순(旬)으로 삼고, 매순(每旬)의 첫째 날은 甲日, 마지막 날은 癸日이라 하였는데 발견된 복사(卜辭)에는 癸일에 1순(旬)이 끝나는 날에 다가오는 열흘 동안의 안위와 길흉을 점쳤던 복사(卜辭)가 다수 발견되었으니 은나라 사람들은 甲일부터 癸日까지 하루하루의 길흉을 하늘에 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당시의 복사(卜辭) 내용을 보면 날짜개념도 역일(曆日)에 따라 육십갑자 간지로 정확히 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갑골문 “癸未卜爭貞亡禍三日乙酉夕(月)有食昏八月 - 癸未日에 복점을 쳐서 십일 간의 망화(亡禍)를 물어보았고 삼일 후 乙酉日 저녁에 부분 월식이 관월에 있었다.”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십간십이지가 역일(曆日)의 계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4. 十干十二支와 六十甲子の 의의

4.1 역원적(曆元的) 의의

십간십이지를 역일(曆日)에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은나라 시기로 갑골문에서 확인되었다. 하지만 甲子年,

9) 진위담 저, 이규갑·윤창준·김시연·김준룡 譯(2002), 『갑골문도론』, 서울: 학고방: 145.

10) 천을(天乙)→외병(外丙)→중임(中壬)→태갑(太甲)→옥정(沃丁)→태경(太庚)→소갑(小甲)→옹기(雍己)→태무(太戊)→중정(中丁)→외임(外壬)→하단갑(河亶甲)→조을(祖乙)→조신(祖辛)→옥갑(沃甲)→조정(祖丁)→남경(南庚)→양갑(陽甲)→반경(盤庚)→소신(小辛)→소을(小乙)→무경(武丁)→조경(祖庚)→조갑(祖甲)→름신(廩辛)→경정(庚丁)→무을(武乙)→태정(太丁)→제을(帝乙)→제신(帝辛)

11) 생일설(生日說)은 『사기(史記)』와 『색은(索隱)』에서 황보밀(皇甫謐)이 말하기를 “미(微)는 자(字)가 상갑(上甲)이다. 그의 어머니가 갑일(甲日)에 낳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은나라에서 아들을 낳으면 태어난 날에 따라 이름을 지었는데 미(微)에서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음에 따른 것이고, 사일설(死日說) 혹은 추명설(追名說)은 갑골문(甲骨文)을 연구하였던 왕국유(王國維)의 주장으로 은나라 사람이 날짜로 이름을 붙인 것은 아마도 성탕 이후의 일일 것이며 선공, 선왕의 생일일을 잘 알지 못하였을 터인데 십간의 순서가 이렇듯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은 사후에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12) 진위담 저, 이규갑·윤창준·김시연·김준룡 譯(2002), 『갑골문도론』, 서울: 학고방: 185.

乙丑年...하는 식으로 1년을 간지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 고대 중국 역법의 기년법이 은력기년법(殷曆紀年法, 기원전 367년), 전욱력기년법(顓頊曆紀年法, 기원전 366년), 세성기년법(歲星紀年法, 기원전 365년), 태초력기년법(太初曆紀年法, 기원전 104년) 등 다양하였고, 기년(紀年)에 대한 근거 확실 또한 은대에 왕이 지내는 제사를 기준으로 기년했을 것이라고 보는 유왕기사기년법(惟王幾祀紀年法), 왕이 즉위한 연차를 기준으로 하여 기년했을 것이라고 보는 즉위기년법(即位紀年法), 춘추시대에 등장한 천체운동에 근거한 기년법 등 다양하다.

간지 육십갑자(六十甲子)로 세(歲)를 표시하는 경우 60년이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다. 간지기년(干支紀年)의 시작은 천체의 운행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고대인들에게 있어 천문현상이 갖는 중요도를 고려할 때 가장 설득력이 있는 학설이다. 또한 『淮南자(淮南子)』에는 “天維建元常以寅始起有徙一歲而移十二歲而大周天終以復始 - 하늘의 건원(建元)은 항상 寅에서 시작하여 1세(歲)씩 움직이고 12세(歲)까지 움직이면 하늘을 한 바퀴 도는 것이 끝이 나고 이내 다시 시작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에 따르면 목성(木星), 즉 세성(歲星)은 약 12년(실제로는 11.86년)에 걸쳐 공전하는데 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子·丑의 십이지를 1년마다 배당하여 육십갑자로 기년(紀年)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목성을 근거로 1년을 정했다 하여 세성기년법(歲星紀年法)이라고 한다.

육십갑자 전개(전개)의 기점은 천간은 甲으로부터 시작하고 지지는 子로부터 시작한다. 천간이 甲으로부터 출발함은 목성이 가진 木의 활동성에 연유하고, 지지가 子로부터 출발함은 일음시생(一陰始生)에 기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삼명통회』는 “天氣始於甲干 地氣始於子支者 乃聖人究乎陰陽重輕之用也 - 천기는 甲에서 시작하고, 지지는 子에서 시작하며 성인께서 음양 경중의 쓰임을 궁구하신 것이다.”라고 하였다. 십간십이지의 활용은 우주 전체로 표상되는 하늘의 변화가 땅의 변화로 수용되어 이것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경험적으로 포착한 것이고, 간지력(干支曆) 또한 이러한 경험적 현상들을 역법이라는 체계에 담은 것으로 고대인들의 노력과 염원이 담겨있는 결과물임에 그 의미가 있다.

한편 간지력(干支曆)의 기원과 더불어 최초로 육십갑

자(六十甲子)를 사용했던 역원(曆元)의 기준 시각은 언제였을까? 『삼명통회』에서는 “천지가 시작된 시기까지 소급할 수 있으니 甲子年, 甲子月, 甲子日, 甲子時가 역원(曆元)이 되며... 천지가 처음 개벽할 때 일월(日月)이 함벽하듯이 위치하였고, 오성(五星)의 운행이 구슬을 꿰듯한 상태가 건우의 첫째별에서 일어난 뒤에 그 시각을 동짓날 자정으로 결정하였다.”¹³⁾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태양계의 일월오성(日月五星)이 북방 자궁(子宮)에서 나란히 놓였을 때를 역원의 기준 시각으로 삼았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일월오성이 취합(聚合)하는 현상에 대해서 『한서(漢書)』 ‘율력지(律曆志)’에서도 “일월여합벽 오성여연주(日月如合璧 五星如連珠)”라는 기록으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심규철(2002)은 육십갑자로 환산한 결과, 일월여합벽 오성여연주(日月如合璧 五星如連珠)의 천문 현상은 중국 황제의 즉위년인 기원전 2696년의 동지점으로 연월일시가 甲子年, 甲子月, 甲子日, 甲子時에 해당한다고 하였다.¹⁴⁾ 이렇듯 태양계의 일월오성(日月五星)이 북방 자궁(子宮)에서 나란히 놓였던 그때를 간지기년(干支紀年)의 역원으로 삼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4.2 역수적(易數的) 의미

육십갑자(六十甲子)의 생성배경에는 일월오성(日月五星)의 존재원리와 지구와의 시공간적 관계가 근본에 자리 잡고 있다. 이와 유사한 체계가 역(易)의 근원인 하도(河圖)와 낙서(洛書)이다. 하도와 낙서에는 음양과 오행이 상(象)과 수(數)를 통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상되어 있는데, 하도(河圖)는 천문의 이치를 담고 있고, 낙서(洛書)는 지리의 이치를 담고 있다. 하도에서 천도의 법칙으로 생성되어 하늘의 체(體)를 이루던 음양이 낙서에서 땅으로 내려와 사방으로 작용을 하고, 하도에서 하늘의 순행하는 이치로 체(體)를 이루던 음양이 낙서에서 땅의 극하는 이치로 퍼져 만물을 만들어 내며, 하도에서의 십간(十干)의 작용력이 낙서에서는 십이지(十二支)로 작용하고, 하도에서 별들이 운행하는 하늘의 이치는 낙서에서 그 별들에 응하는 땅의 이치가 된다. 즉, 하도

13) 『三命通會』, “必能遠溯天之始 故以年甲子月甲子日甲子時 甲子爲曆元... 天地初開闢 日月如合璧 五星如連珠 俱起於 牽牛之初 而後可以定夜半之冬至”

14) 심규철(2002), “명리학의 연원과 이론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26.

는 바로 지구를 중심으로 한 태양계 행성들의 운행원리를 상(象)과 수(數)의 음양오행으로 표상한 천문체계(天文體系)이며 낙서는 지리체계(地理體系)인데, 하도와 낙서의 근본원리가 십간과 십이지 그리고 그 조합인 육십갑자의 생성원리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하도와 낙서의 모든 수리 원리를 전부 기술할 수는 없으나, 예를 들어 하도(河圖)의 수(數) 10개 중 1은 태극수(太極數)요, 2는 시음수(始陰數)요, 3은 시양수(始陽數)가 되고, 사상수(四象數)에 해당하는 건괘(乾卦)는 9라는 태양수(太陽數)가 되고, 곤괘(坤卦)는 6이라는 태음수(太陰數)가 되며, 감괘(坎卦)는 7이라는 소양수(少陽數)가 되며, 이괘(離卦)는 8이라는 소음수(少陰數)가 된다. 사상수들은 춘하추동, 원형이정 등 4단계를 거치니 4를 곱하여 완성수를 이루면 태양수는 36, 태음수는 24, 소양수는 28, 소음수는 32가 된다. 태양수와 태음수를 합하고, 소양수와 소음수를 합치면 각각 육십갑자의 수리 60이 된다.

또 60이란 수리는 십간과 십이지를 음양으로 구분하면 각각 5와 6이 되니 이를 서로 곱하면 30이 이루어지고 음양이 서로 나뉘어 있으니 남은 부분의 30을 더하면 천지운행의 기본수로서 60이 생성된다. 이렇듯 태양수와 태음수의 합, 소양수와 소음수의 합, 십간과 십이지의 음양합(陰陽合)은 60이 되며, 천지운행의 기본수 60이 여섯 번의 변화과정을 거치면 360이라는 1년의 수가 완성되니, 십간십이지가 조합된 육십갑자에는 천지운행(天地運行)의 역수적(易數的) 의의가 담겨있다.

조금 더 하도낙서와 십간십이지의 관계를 살펴보면 하도와 낙서는 천일생수(天一生水)의 법칙에 따라 천(天)은 왼쪽으로 돌고, 지(地)는 오른쪽으로 돌면서 천간지지(天干地支)가 이루어진다. 육십갑자(六十甲子)도 천(天)으로부터 천기(天氣)인 십간이 하강하여 십이지를 이루고, 지(地)의 지기(地氣)는 상생상극 작용으로 순환하여 만물을 생성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육십갑자는 하도(河圖)의 상생원리(相生原理)와 낙서(洛書)의 상극원리(相剋原理)를 십간십이지라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현한 것이다. 육십갑자의 순서는 천지(天地)의 이치와 만물의 생성원리가 담겨있으며, 근원적으로 하도 낙서의 원리가 깊숙이 묻어있는 부호체계로서, 하도와 낙서에 함축된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원리를 내포하고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동양의 고대 역법과 사회 전반에 녹아있는 십간십이지의 기원과 의의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십간과 십이지가 중국 상고시대부터 10월력 및 12월력에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이유 있는 가설을 제시해 보았고, 고전문헌에 남아 있는 십간십이지의 기원에 관한 기록들을 정리함과 동시에 갑골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은나라 시대의 십간십이지 사용 모습을 재고해 봄으로써 그 기원에 대한 소결에 도달해 보았다. 그리고 십간십이지가 상하 조합으로 육십갑자를 이루고 한대에 이르러 음양오행과 결합하면서 역학과 명리학에 사용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논쟁 중에서 논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던 역원(曆元)과 역수(易數)의 의의를 간략하나마 검토해 보았다.

십간십이지의 문헌적 고찰을 통해 이 부호체계는 신석기 후기 부계 씨족사회를 이끌던 황제와 그의 스승 대요에 의해 완성되었을 것이라고 본 연구자는 생각하며 그 이유는 제순시대에 남겨진 고대 천상대 유물이 십간과 연관된 10월력의 사용을 뒷받침하고, 갑골문에 나타난 십간이 신성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역법에 사용되었음을 볼 때 시간을 기록화하고자 하였던 역법의 시대와 그 궤를 같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십간십이지는 육십갑자라는 조합과 이를 연월일시에 모두 적용하는 간지역법(干支曆法)을 통해 사람이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그의 명(命)과 운(運)을 살피는 사주명리학의 기호체계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신법 명리학이 그 틀을 갖춘 이래로 1천년 동안 수많은 명리학자들은 그 이론체계의 논리성을 담보해 내려고 노력하면서 잘못된 과거의 이론들을 재정비하고 미신적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그 학문적 위상을 높이고자 힘써왔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명리학이 귀납적 경험에 따라 동양 상담학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인정하면서 통계적 사회과학 기법을 통해 그 이론을 증명해 보려고 노력해 오고 있다. 명리학에 대한 이러한 부단한 연구 노력 과정에서 그 근간이 되는 십간십이지에 대한 이 연구결과가 향후 관련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References

- [1] 김기승(2016), 『과학명리』, 서울: 다산글방.
- [2] 김만태(2011), “민속신앙을 읽는 부호 십간십이지(十干十二支)에 대한 근원적 고찰”, 『민족문화연구』, (54), 259-302.
- [3] 윤창렬(1987), “간지(干支)와 운기(運氣)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윤창렬(1995), “십간(十干)과 십이지(十二支)에 대한 고찰”, 『대전대학교 한의학 논문집』, 4(2), 1-19.
- [5] 윤창렬(1996), “육십갑자(六十甲子)와 음양오행(陰陽五行)에 관한 고찰”, 『대전대학교 한의학 논문집』, 5(1), 1-11.
- [6] 이은성(1985), 『역법(曆法)의 원리분석(原理分析)』, 서울: 정음사.
- [7] 전경찬(2007), “간지(干支)와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융합(融合) 및 적용(適用)에 관한 고찰”, 동방대학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8] 진위담 著, 이규갑·윤창준·김시연·김준룡 譯(2002), 『갑골문도론(甲骨文導論)』, 서울: 학고방.
- [9] 소 길 著, 김수길·윤상철 譯(1998), 『오행대의(五行大義)』, 서울: 대유학당.
- [10] 심규철(2002), “명리학(命理學)의 연원(淵源)과 이론체계(理論體系)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11] 홍성국(2006), 『60갑자(甲子)와 시간 그리고 동양의학』, 서울: 초락당.
- [12] 萬民英(1996), 『三命通會』, 台北: 武陵出版社.
- [13] 徐 升(2011), 『淵海子平』, 台北: 進源書局.
- [14] 許 慎(1996), 『說文解字』, 台北: 中華書局出版.

김기승(Kim, Ki-Seung)



- 2011년 2월 : KICU대학원졸업(교육학박사)
- 2014년 2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졸업(직업학박사)
- 2005년 3월~2011년 4월 KICU대학원 교수
- 2012년 3월~현재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진로교육, 선천적성, 직업상담, 명리학
- E-Mail : kbs4984@hanmail.net

나혁진(Na, Hyeok-Jin)



- 2000년 2월 :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문학사)
- 2004년 2월 : 시드니공과대학 정보기술학과(Graduate Diploma)
- 2017년 2월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국학과(국학석사)
- 2017년 3월~현재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동양학과(박사과정)
- 관심분야 : 명리학, 정보처리기술, 교육학
- E-Mail : peter750504@naver.com